

[일반직] 사무 /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합격이야기

훈련기획부 김민선

① 인사말

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체육회 일반직(사무)으로 입사하여 훈련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선입니다.

저는 스포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고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체육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대한체육회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② 서류전형

정량평가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KBS한국어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가점사항인 영어회화는 토익스피킹 AL 성적이 있었습니다. 경력으로는 약 2년간 프로스포츠업계와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정성평가(자기소개서)에서는 저의 경험을 대한체육회의 비전·인재상·주요 현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문항마다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그 경험에서 확인된 수치 기반의 성과를 기관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연결하는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둔 내용은 면접에서 제 강점을 설명할 때도 자연스러운 토대가 되었습니다.

③ 필기전형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정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방향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다진 기본기를 실전감각으로 연결하기 위해, 타 기관의 필기시험들을 응시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 넘겨야 할 문제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4 면접전형

자기소개서와 예상 질문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과정이 영어면접 대비뿐만 아니라, 제 답변의 논리를 다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PT 발표는 발표 시간이 짧은 만큼, 한 페이지 안에서 가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연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를 분석할 때는 핵심가치·경영목표·전략과제·사업 등 각각에서 최소 하나씩은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자신 있는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길고 완벽하게 답하기보다, 아는 부분을 차분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회사생활

현재 훈련기획부에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인 만큼, 현장의 열기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보람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스포츠를 즐기고,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종합경기대회에 흥미를 가지고 팀코리아를 응원해 온 분들이라면, 대한체육회는 그 관심을 업무로 이어가며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맺음말

채용을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대한체육회를 연결 지으며 의지를 다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 경험과 노력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